

의안번호	제 399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9월 일 (제411회)

충북지역 의과대학 정원 확대 건의안

제 안 자	정책복지위원장
제안연월일	2023년 9월 8일

충북지역 의과대학 정원 확대 건의안

의안 번호	399
----------	-----

제안연월일 : 2023년 9월 8일

제안자 : 정책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 충북도민의 건강수준은 열악하고, 의료환경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의료자원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등 지역간 의료불균형이 심각함
 - '치료가능 사망자수' 전국 1위,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률' 전국 1위
 - 충북도민의 기대수명 전국 최하위(82.6세), 건강수명 전국 하위권(65.6세)
 - '인구 천명당 의사수' 전국 14위, '의료기관수' 전국 13위 등
- 이런 열악한 의료환경은 의사수의 현저한 부족에 기인한 것이며, 도내 주요병원의 의사수는 정원대비 182명이나 모자른 상황임
- 충북의 의대정원은 89명(충북대49명, 건국대40명)으로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 197명의 45% 수준이며,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원(267명), 전북(235명)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충북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충북지역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197명)와 국립 치과대학 설립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

□ 붙임: 건의문

- 보낼곳: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교섭단체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충북지역 의과대학 정원 확대 건의문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어디에 살더라도 의료서비스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만, 충북도민은 차별적 의료서비스로 인해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강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 도민들은 치료가능 사망자수 전국 1위,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률 전국 1위 등 치료를 통해 생존할 수 있는 환자가 타 지역에 비해 최대 1.5배 이상이나 사망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충북도민의 건강수준은 기대수명 82.6세, 건강수명 65.6세로 전국 최하위권에 달하는 너무나 심각한 지경입니다.

반면에, 충북의 의료서비스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인구 천명당 의사수 전국 14위, 의료기관수 전국 13위 등으로 의료자원이 전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통계치는 충북 의료환경 수준의 민낯을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충북도민은 충북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은 타 지역에 비해 의료서비스 주체인 의사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도내 주요 병원은 의사 수가 정원대비 182명이나 모자랍니다. 지역 거점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은 정원 422명 대비 59명(14%), 건국대 병원도 정원 118명 대비 64명(54%)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연구에 의하면, 수도권 소재 의대 출신 의사의 지방근무 비율(14.2%)보다 지방의대 출신 의사의 지방근무 비율(44.2%)이 3배나 높고, 전공의 수련지역이 수도권의 지방근무 비율(16.6%)보다 지방일 경우 지방근무 비율(65.6%)이 무려 4.2배나 높다고 합니다.

현재 의대정원은 비수도권 광역도의 평균이 197명인데, 충북의 경우 89명(충북대49명, 건국대40명)으로 45%에 불과합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원 267명, 전북 235명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개 전공의 수련생은 정원의 300~350% 정도이나, 충주 건국대의 경우 32%(정원 40명 대비 13명)로 형식적인 수준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충북은 타지역에 비해 의대정원이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국립 치과대학도 없어 양질의 치과 분야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최근엔, 도내 대학병원이 2개소 임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야간 응급진료 의사가 없어 산모가 수도권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하는 슬픈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충북도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충북지역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매우 시급하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은 164만 충북도민의 의지와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의료자원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인재 유출방지과 외부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 충북지역의 의대정원을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 197명으로 확대하라.

하나, 충북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역의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국립 치과대학을 즉각 설치하라.

2023년 9월 19일

충청북도의회